



2020년 12월 27일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나해)

제2124호



Simeon's Song of Praise(1669), Rembrandt,
National museum, Stockholm.

“다른 민족들에게는
게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루카 2,32)

■ 미사전례

- 제 1독서: 집회 3,2-6.1214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독서: 콜로 3,12-21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루카 2,22-40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20 - 계시에 대해서....(5)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느님 계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를 드러낼 주체는 '나'다. '남'이 아니다. 우선 '나'에 집중해 보자. 계시는 나 이외에도 '우리'와 '세계' '우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여기선 우선 '나'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의사, 외교관, 법조인, 교육자, 운동선수, 농부, 어부....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은 자신이 외교관이 될지, 의사가 될지, 법조인이 될지 모른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다. 지난주에 말한 계시 전(前), 계시 밖(外)의 차원이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서서히 어떤 직업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지 감을 잡게 된다. 학문적 차원의 탐색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 국사 영어 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중에 자신이 가진 능력, талан트가 무엇인지 탐색하게 된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한다. 그러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나는 의사가 적성에 맞겠다" 혹은 "나는 운동선수가 적성에 맞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느낌이 오면 우리는 그 분야에 점점 관심을 갖고 가까이 접하게 된다. 책 혹은 자료를 뒤지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등 해당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여 관심을 기울인다. 일종의 준비운동 시간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심'한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가고,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을 간다. 농부가 되고 싶다면 농과대학을 가고, 밤하늘의 별을 사랑한다면 천문학과에 입학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계시가 내용화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계시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계시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계시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멈춤'으로 있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다.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의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새 치료법들을 습득해야 한다. 의사 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오는 환자를 대충대충 진료하는 의사는 훌륭한 의사가 아니다. 법조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판결들을 숙지해야 한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우승했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야구선수는 없다.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훈련한다.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경력이 쌓이다 보면 가르칠 내용이 뻔해지고, 그 결과 안주할 수 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도 늘 깨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안주할 수 있다. 환경 공법 등 새로이 대두되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아직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결정하지 못한 초등학생은 계시 밖에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가는 것,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의사와 교사가 되는 것은 낮은 단계이지만 계시적인 차원으로 들어왔다고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계시적 차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계시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사,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

박태환은 수영을 선택하기 전에 역도를 할 수도 있었고 테니스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런 그가 수영에 입문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계시적인 차원에 들어선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는 순간 그의 수영 실력은 멈추게 된다.

계시 후(後)가 중요하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계시는 '나'의 최후 그 날, 완성되는 것이다.

<가톨릭신문 제2769호 (2011년 11월 6일)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성삼 소식

故현기호(시몬) 신부님 35주기 추모일

- 날짜: 12월 30일(수) *기도중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일시: 2020년 12월 31일(목) 저녁 7:30
2021년 1월 1일(금) 오전 11:00

첫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

- 일시: 2021년 1월 2일(토) 오전 8:00
(묵주기도는 미사 후에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매 주일 오전 9:00, 201호
- 문의: 복음화부장 임상도(스테파노) ☎213-361-4907

주일학교 · 한국학교

주일학교 겨울 방학

- 기간: 12월 27일(일), 2021년 1월 3일(일)
- 개학: 2021년 1월 10일(일) 영어미사 후
- 등록: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성삼 한국학교 겨울 방학

- 기간: 12월 26일(토), 2021년 1월 2일(토)
- 개학: 2021년 1월 9일(토) 오전 9:30



감사합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제대 장식을 위한 꽃 봉헌 해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대회-

우리들의 정성 (2020 12. 20 현재)

교 무 금	17,520.00	교무금(27명) 구준우, 김미영, 김복선, 김은민, 김정희, 김찬수, 김창길, 박경조, 박기종, 박진우, 박효신, 신동욱, 예영해, 윤성한, 윤숙현, 이 궁, 이길웅, 이상규, 이상모, 이영옥, 이 호, 장우상, 정종문, 정혜숙, 주태근, 최정훈, 한순한,
주일헌금	1,027.00	
감사헌금	2,440.00	
광고비	1,000.00	
성소후원회	80.00	
		감사헌금(7명) 김창욱, 김천희, 엄영근, 우인주, 이상규, 한상윤, 익 명, 성소후원금(15명)

본당살림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축일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가정은 복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며 또한 교회의 교리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정은 가장 필수적이고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주체 곧 창조적 주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이 주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항구하고 영성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가장 기초적인 범위 안에서 교회(Ecclesia Domestica)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정은 반드시 특수한 양상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명을 위한 고유한 몫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정은 인류의 거룩한 유산이며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첫 번째의 기본적 환경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싸움은 가정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으며 혼인에 대한 충실성과 생명가치의 존중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 가정은 젊은이들이 인격적 사회적 성숙으로 성장하는 일상적인 장소
- 가정은 또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세세 대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인류 자신의 유산의 보유자. 그리스도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정은 "집안교회"(교회헌장11항)
- 그리스도인 가정은 삶의 규범이며 선물이 되는 장소
- 가정은 단지 교회의 사목적 배려의 대상만이 아니라 또한 가장 효과적인 복음화의 매개체들 가운데 하나
- 그리스도교 가정들은 가정 그 자체가 온갖 종류의 반대세력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름 받은 것. 이러한 시대에 복음화의 한 주체가 되려면 그리스도교 가정은 겸손과 사랑 속에 그리스도교적 성소를 살아가는 진정한 "집안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기도하는 가정, 이웃을 돕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 & 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L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 & 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 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제인 건너편 이전계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 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 • TUNE-UP • BRAKE • CHECK ENGINE • 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